

# 대구은행연수원

## Taegu Bank Training Institute

변 용 · 정현화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간축  
 Designed by Byun Yong & Cheong Hyun-Hwa

### 건축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산92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28,080㎡
건축면적	3,679.77㎡
연면적	10,498.47㎡
건폐율	13.1%
용적률	37.4%
규모	지상 6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외부마감	THK 18 컬러복층유리, THK 35 Sandstone, THK 2.0 알미늄판
설계담당	박종성, 임영수, 홍재정, 송재연, 김석원, 표상우
상주감리	임영수
전기설계	새한전기
기계설계	한일 M.E.C.
조경설계	DSK + 서인조경
구조설계	서울구조
시공	(주)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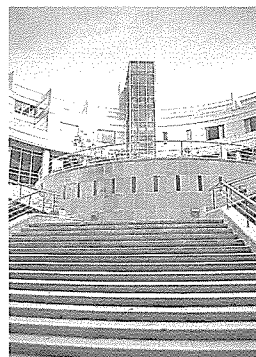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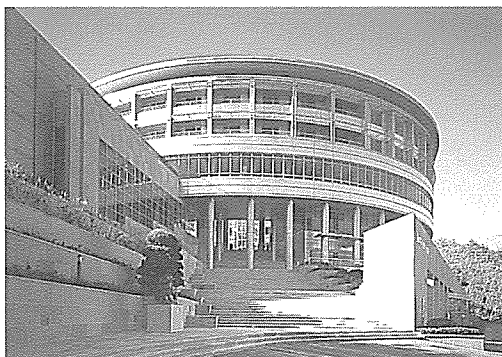
1. 주방
2. 전기실
3. 기계실
4. 식당
5. 강당
6. 사무실
7. 강의실 홀
8. 휴게실
9. 침실
10. 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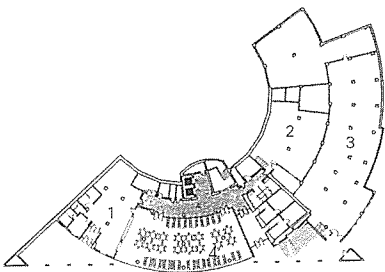
### (자연)이란 폐제를 앞에 두고

인간이 스스로 겸허하게 됨을 느끼게 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앞에 두고 우리는 건축을 통하여 어떻게 그 자연을 모두의 가슴에 끌어들이 수 있을까? 얼마나 깊이 그 자연을 관조할 수 있게 하며 인간과 동화되게 하는 공간적 방법 없을까? 그리고 구상적인 자연을 추상적인 방법으로 극대화시키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의문과 관심속에서 이 프로젝트는 계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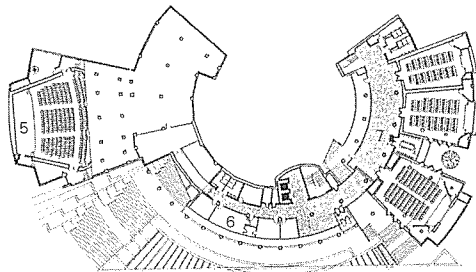
자연을 최대한도로 팽창시켜 우리의 동공을 통하여 가슴에 끌어들이는 방법의 한가지로 눈의 시계를 극대화시키는 방법, 그것은 공간의 파노라마적인 연출이었다고 생각하였으며, 그것의 즉물적 완성을 위해서 원형이라는 기하학적인 매개체를 이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코 원이라는 형태가 갖고있는 속성에 구속될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원형에 구속된다기보다는 자연으로의 팽창을 이끌어내는 매개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자연이 원이라는 무한궤도의 매개체에 접하게되고 인간을 그 원의 한가운데 서게 했을 때, 공간은 자연을 향하여 부풀림을 갖게되고, 반대로 우리는 자연을 향해 겸허한 소점이 되어 인간의 내부로 향하는 응집력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네의 전통건축 중에서 서원의 배치논리가 자연의 관조라는 자연을 향한 부풀림의 발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해, 가람배치에서 사찰에 접근하는 시퀀스의 방법들은 구심력의 생성에 그 근거를 두고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에서 두개의 중첩된 원, 하나는 자연이라는 외부로 전개된 볼록원과 또 하나는 중정을 둘러싸고 있는 인공적인 한정된 공간의 오목원을 마련하여, 두개의 서로 다른 자연의 대비를 설정하고 그 사이에 건축적 공간을 끼워 넣어 자연과의 동화를 극대화시키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밖으로 열려진 자연과의 접점을 한점 끌어들이 내부에 중정이라는 마당의 공간을 만들려한 발상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두개의 자연사이의 틈 속에 건축적 공간이 비집고 들어서게 하고 싶었다. 생성된 건축적 공간에 밖으로 열린 몇 개의 피로티공간과 하늘로 향한 중정의 천공을 두어서 두개의 자연을 서로 관입시키려 하였다. 이 중정은 외부의 구상적 자연의 전개에 대하여 자연을 추상화시키는 요소로 사용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는 그러한 공간적인 긴장과 여유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정의 크기의 결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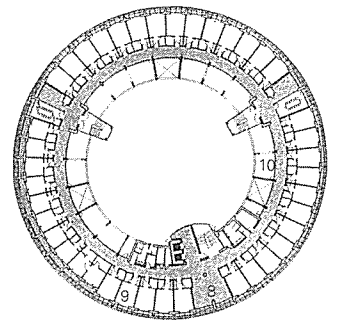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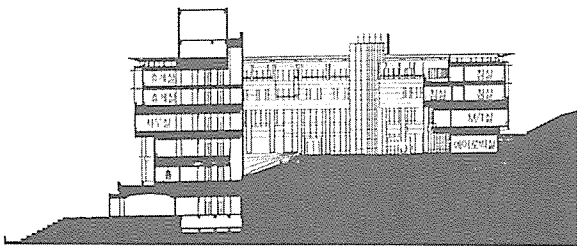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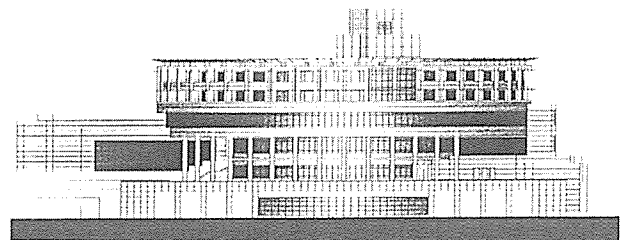
2층 평면도



6층 평면도



단면도



복측면도

